

# ‘반도체 쇼크’ 현실화...광주·전남 수출 하락세

## 광주·전남 1월 수출입 동향

광주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쇼크’ 사태로 지역경제에 위기가 임박하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2023년 2월9일자 9면)와 관련,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달 광주의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5%나 감소하면서 주력 품목의 부진으로 지역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3년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5% 감소한 46억1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0% 감소한 41억62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억51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광주·전남의 수출은 전월(49억2600만 달러)과 비교해도 6.3%나 감소했다. 지난해 10월(52억9500만)까지 유지했던 수출 50억 달러 문턱도 석 달째 넘지 못했다.

## ‘수출 1위’ 반도체 전년비 15% 급감...광주·전남 수출 6.3% 줄어 수송장비·타이어 전월대비 30%대 증가에 무역적자는 겨우 면해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수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4억3100만 달러였다. 전남지역 수출은 같은 기간 12.5%나 감소한 31억8300만 달러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광주의 수출 1위 품목이었던 반도체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다.

지난 달 광주의 반도체 수출은 3억926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6216만 달러에 비해 15% (6950만 달러) 급감했다.

전년 대비 32.7% 증가한 수송장비(6억6551만 달러)와 34.0% 증가한 타이어(6099만 달러)가 아니었다면 지난 달 광주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는 광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수출은 전국적인 무역적자 속에서도 179억5000만 달러로, 82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의 무역 흑자를 이끈 것은 반도체로,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7.9% 증가해 광주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특히 광주의 반도체 수출은 사상 첫 60억 달러를 돌파해 명실상부 지역의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입지를 굳혔다.

광주의 반도체 수출은 2019년과 36억8000만 달러, 2020년 38억1000만 달러에서 2021년 49억8000만 달러로 급성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6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9% 급증, 광주 수출

1위 품목이던 자동차(54억5000만 달러)를 누르고 1위 자리에 올랐다. 전체 수출액에서의 비중도 38.3%에 달한다.

하지만 ‘잘 나가던’ 반도체 시장에 한파가 불어왔고, 실제 광주의 반도체 수출 하락이 현실화하자 지역경제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인 무역적자 속에서도 광주는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반도체의 불황으로 흑자 전선마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반도체 업황 악화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도 나온다.

광주경제계 한 관계자는 “광주에서 수출하는 반도체는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로, 수출이 크게 줄어든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타격은 덜한 편이다”며 “하지만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이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불안요소”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걱정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환기장치 설치 사업장 최대 5000만원 지원

앞으로 급성중독이나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7일부터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 요인을 가진 사업장 370여 곳을 지원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 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지원한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환기장치는 물론이고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지원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세척 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 시설의 폐암 등의 사례가 공통으로 환기 시설이 없거나 성능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17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임소환우 최대 ‘반값’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한우코너에서 직원이 한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9일까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위해 축산 바이어가 직접 공판장에 참석해 엄선한 고품질 임소환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 는 임소환우 등심로스(100g) 9900원, 채끝로스(100g)1만1900원, 정육 불고기(100g) 3900원 등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 금호타이어 ESG 경영 ‘속도’...ESG위원회 신설

### 정일택 대표이사 위원장 맡아

금호타이어는 최근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하며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의 ESG위원회 신설은 사내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ESG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ESG경영을 종합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정일택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

고, 송문선 사외이사 및 김진영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ESG위원회는 ▲ESG경영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 ▲ESG경영 과제 관리감독 ▲환경경영, 기후 변화 대응 ▲비재무 리스크 관리감독 역할을 담당하며,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로서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전략에 ESG 이슈를 통합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2022년 유엔글로벌 콤팩트 가입, 탄소중립 계획 발표, 태양광발전 구축 등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정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경영을 강화한다”며 “ESG경영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젠다로 임직원 모두 ESG경영 내재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22년 기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AA등급, 에코바디스(Ecovadis) 실버 메달을 획득했으며,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부분에서 매니지먼트 B등급을 획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대출고객 권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한다

### 신청 건수 공시에서 금리 인하폭 공시로 확대

시중은행이 고객 성과급 지급 논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은행에 주문해왔다.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도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

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게 된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도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29%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32.3%), KB국민은행(37.9%), 우리은행(46.1%), NH농협은행(60.5%)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라 이자 감면액은 신한은행이 27억원, 하나은행이 11억원, 국민은행이 8억6천만원, 우리은행 7억7천만원, 농협은행이 5억원이었다. /연합뉴스

## 중소기업계 “튀르키예, 힘내세요”

### 중기중앙회-중기사랑나눔재단, 28일까지 모금 캠페인

중소기업계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모금캠페인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함께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계의 십시일반 모금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금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동참 가능하다. 마련된 성금에 재단의 재난재해 사업비를 더해 최소 1억원의 성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집된 성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개설한

계좌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다시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로 송금돼 현지 복구에 사용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축을 잃은 슬픔과 삶의 터전이 모두 무너진 이재민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위도가 되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오는 28일까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목표금액이 달성되면 수시로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2대 회장에 조인호

조인호(사진) 해광이엔씨 대표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11대 정달홍 회장 이임식과 제12대 조인호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인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파트너 역할과 함께 기계설비 디지털화로 스마트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건설산업의 미래 선도, 기계설비법 정착 및 기계설비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의 백년대계 기반 마련

을 위한 교육원 설립 추진, 사회적 취약 계층의 노후된 기계설비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계설비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인호 회장은 임기는 2026년 1월까지로, 3년간 기계설비건설협회와 산하 기관 및 기계설비산업을 이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삼성 “갤럭시 고객 ‘One UI 5.1’ 업데이트 하세요”

### 전문가 수준의 카메라 기능·앱 관리 ‘맞춤형’으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시리즈와 함께 공개된 최신 OS One UI 5.1을 기존 갤럭시 모델에 확대 적용한다.

One UI 5.1 업데이트는 갤럭시 S23 시리즈와 함께 공개된 최신 카메라 기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사용자는 ‘Expert RAW’ 앱을 활용해 전문가 수준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기본 카메라에서 ‘더 보기’를 선택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RAW 포맷의 고품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향상된 AI 기반의 포토 리마스터 기능도 제공한다. 밝기 개선, 세부 정보 조정, 역광에서 촬영된 이미지의 노이즈 개선, 원치 않는 그림자와 반사 제거 등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인터페이스 또한 보다 편리해져 갤러리 앱에서 보다 쉽게 사진을 탐색할 수 있고 가족 공유 앨범

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날씨 위젯’은 사용자 위치의 날씨를 기반으로 직관적인 일러스트를 통한 다양한 날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모드와 루틴’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한 특정 행동에 맞춰 배경화면, 벨소리, 터치 감도, 폰트까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북(Book)’ 간에 확장된 멀티 컨트롤 기능으로 모바일과 PC를 아우르는 연결된 생태계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One UI 5.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갤럭시 S22 시리즈, Z 폴드4, Z 플립4, S21 시리즈, S20 시리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갤럭시 Z 폴드3, Z 플립3, 갤럭시 탭 S8 등 추가 갤럭시 제품도 다음달까지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비트코인 2만4000달러 돌파 ‘6개월만에 최고’

### 24시간 전보다 9.27% 급등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5일(현지시간) 2만4000달러(3089만원)를 돌파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서부 오후 4시)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9.27% 급등한 2만4334달러(3124만원)를 나타냈다.

이는 2만4500달러(3143만원)에 근접했던 지

난해 8월 13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7.52% 상승한 1676달러(215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만 해도 2만3000달러(2953만원)선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지난 13일에는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미 당국의 규제 강화 우려로 2만1000달러(2697만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를 만에 10% 이상 뛰어 오르며 단숨에 2만4000달러를 넘어섰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475.48(+47.58)
코스닥	784.71(+19.25)
금리(국고채 3년)	3.504(+0.002)
환율(USD)	1284.80(+2.60)